

여호수아서

제 1 강

여호수아서 서론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웅 (Pasto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7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copyright ©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역자 서문

삼천년기 사역(Thirdmill = Third Millennium Ministries)은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 교육을 전세계를 향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국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다. 삼천년기 사역은 제이니 필로우(Janie Pillow)와 리차드 프랫(Richard L. Pratt, Jr.) 박사에 의해 1997년에 시작되었다. 삼천년기 사역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세계 인구의 총 42 퍼센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인도네시아어, 힌디어, 루마니아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암하라어, 텔루구어 등)은 삼천년기 사역자의 감수 아래 각 언어의 자원자들이 번역하여 올린 것이다.

본 강좌는 **여호수아서**를 다루는 강좌로 총 4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강은 “여호수아서 서론”으로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첫째로, 책의 저자와 연대를 다루며 이 문제들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비평주의 관점, 복음주의 관점을 소개한다. 둘째로, 여호수아서의 디자인과 목적을 조사하며 책의 내용과 구조 그리고 책의 원래 의미를 소개한다. 원래의 의미를 살필 때 다섯 가지 주제, 곧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언약, 모세 율법의 규정,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온 이스라엘이란 주제를 다루는 것을 소개한다. 셋째로, 여호수아서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몇 가지 기독교인의 적용을 탐구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개시와 지속과 완성의 단계에서 어떻게 여호수아서에서 확립된 기대들을 성취하시는지 소개한다. 제 2강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으로 1-12장을 다루며 크게 세 부분 즉 승리를 위한 준비(1장)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승리(2-8장) 그리고 남부 연맹과 북부 연맹에 대한 승리(9-12장)로 나누어 각 부분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원래의 의미를 살핀 후에 1-12장 전체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제시한다. 제 3강은 “지파들의 기업”으로 13-22장을 다루며 크게 세 부분 곧 초기 경계(13:1-14), 구체적인 기업 분배(13:15-21:45), 거국일치(22:1-34)로 나누어 각 부분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원래의 의미를 살핀 후 13-22장 전체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제시한다. 제 4강은 “언약의 충성”으로 23-24장을 다루며 언약 경고(23장)과 언약 갱신(24장)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원래 의미를 살핀 후에 23-24장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제시한다.

이 **여호수아서** 강좌를 통하여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원래 의미를 찾아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 “여호수아서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 크신 여호수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커질 것이다.” 양질의 원강의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번역문의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번역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이 수준 높은 신학 강좌들의 원본 동영상은 한국어 더빙을 통해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번역, 편집, 더빙 등 한국어와 관련된 사역에 자원해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역자의 이메일 hesedlee@gmail.com 으로 연락주기 바란다.

이번 **여호수아서** 강좌의 번역은 이웅 목사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웅 목사님은 미국 토랜스 선한 목자 교회의 장로로 충성스럽게 봉사하였고,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KAPC 총회 산하 LA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순전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다.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이웅 목사님과 이미자 사모님의 슬하에는 아들 이훈일 (Dustin)과 딸 이은혜 (Helen)가 있다. 이웅 목사님의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호수아서(The Book of Joshua)

제 1 강 여호수아서 서론(Introduction to Joshua)

목차(Contents)

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저자와 연대(AUTHORSHIP AND DATE)	2
A. 전통적 견해(Traditional Outlooks)	2
B. 비평주의 견해(Critical Outlooks)	4
C. 복음주의 견해(Evangelical Outlooks)	5
1. 형성 과정(Development)	5
2. 완성(Completion)	6
III. 디자인과 목적(DESIGN AND PURPOSE)	9
A. 내용과 구조(Content and Structure)	10
1.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1–12 장).....	11
2.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13–22 장)	12
3.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23–24 장)	12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13
1.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16
2.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20
3.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22
IV.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24
A. 개시(Inauguration).....	26
1.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26
2.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27
3.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27

B. 지속(Continuation).....	28
1.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28
2.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29
3.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29
C. 완성(Consummation).....	30
1.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30
2.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31
3.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31
V. 결론(CONCLUSION).....	32

여호수아서(The Book of Joshua)¹

제 1 강 여호수아서 서론(Introduction to Joshua)

I. 서론(INTRODUCTION)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일어났던 거대한 사건들을 기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후세대들이 도전, 상실 및 실망에 직면해 있을 때, 그들에게 그 예전 사건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은 종종 필요한 일이다. 이 일반적인 경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반영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국이 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후세대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강좌의 첫 번째 강의이고 그 제목은 “여호수아서 서론”이다. 곧 알게 되겠지만, 여호수아서가 고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공부하면, 우리 시대에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에 대한 우리의 서론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저자와 연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디자인과 목적을 소개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서의 저자와 연대 문제를 살펴보자.

¹ **Dr. Seth Tarrer (Host)** is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Biblical Languages at Knox Theological Seminary. Dr. Tarrer received his M.Div. from Beeson Divinity School and his Ph.D. from University of St. Andrews. He is a member of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d has taught at seminaries in Buenos Aires, Argentina, and Medellin, Colombia. He is the author of *Reading with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True and False Prophecy in the Book of Jeremiah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Eisenbrauns, 2013).

II. 저자와 연대(AUTHORSHIP AND DATE)

성령님은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참된 역사적 기록을 줄 수 있도록 그 책에 영감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서 그 역사적 기록을 작성하는 인간 저자의 관점과 목적을 이용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 저자와 그의 시대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여호수아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저자와 연대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견해는 전통적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비평주의 견해이고, 세 번째 견해는 이 강의에서 우리를 인도할 몇 가지 기본적인 복음주의 견해이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서에 대한 고대의 전통적인 견해를 살펴보자.

A. 전통적 견해(TRADITIONAL OUTLOOKS)

여호수아서는 익명이다. 여호수아서는 물론이고 나머지 다른 성경책도 여호수아서의 최종 편집자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현대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라는 명칭은 책이 기록된 지 한참 후에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대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전통적인 입장의 경향은 **탈무드**에 표현된 랍비적 관점에 잘 요약되어 있다. **바바 바트라 15** 로 알려진 **탈무드** 부분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과 답변이 나온다.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수아가 그의 책을 썼다. 그러나 "여호와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엘르아살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비느하스가 완성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랍비들은 책의 대부분의 저자로 여호수아 자신을 지목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의 어떤 부분이 기록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들은 수 24:29 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돌렸다. 그리고 그들은 수

24:33 에 나오는 엘르아살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돌렸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서는 매우 이른 시기에, 곧 그 책의 사건들 직후에 기록되었다.

사실을 말하면, **탈무드**의 구체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 엘르아살, 비느하스가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출 17:14 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기록을 보존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 8:32 과 수 24:26 과 같은 구절들에서 여호수아는 의식용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감독했다. 같은 맥락에서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성경을 다루고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책을 작성할 때 다양한 기록 자료들에 의존했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최소한 간접적으로 이 자료들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칩 맥다니엘[Chip McDaniel] 박사)² 여호수아서는 그 기록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여호수아 18 장은 분깃을 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기업 분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여호수아는 그 일곱 지파 사람들에게 차지할 땅으로 가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써 오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온다. 내 생각에는 십중팔구 그것이 여호수아 18-20 장에서 우리가 보는 묘사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 지파들이 그들의 땅을 분배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취한 도시들과 땅의 경계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8-20 장의 그 부분은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그려 가지고 돌아온 초기의 기록일

² **Dr. Chip McDaniel** i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Hebrew at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것이다. ... 여호수아 24 장은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적어도 거기에는 십중팔구 여호수아가 그 때 이스라엘 자손과 맺고 있었던 언약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과 같은 [성격의] 책이었을 것이기 암시된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둘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것은 모세의 기록이 여호와 앞에, 곧 분명히 성막 안에, 신성한 보관물로 두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도 역시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 땅에 대한 묘사가 들어있고, 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많은 세부 사항들을 담고 있는 전투와 관련된 다른 설명들도 역시 모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매우 이른 시기에 십중팔구 여호수아에 의해 기록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여호수아서의 저자와 연대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를 염두에 두고 현대의 비평주의 견해, 즉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거부하는 현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를 살펴보자.

B. 비평주의 견해(CRITICAL OUTLOOKS)

여호수아서에 대한 비평주의 견해를 갖는 대부분의 최근 학자들은 마틴 노트가 1943 년에 쓴 작품인 **신명기적 역사**(*The Deuteronomistic History*)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간단히 말해서, 노트의 견해는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가 보통 "신명기 사가"로 불리는 사람에 의해 바벨론 유수 중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를 포함한 신명기적 역사 전체는 바벨론 유수 중에 더 이른 다양한 기록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노트에 의하면, 이 책들(신명기에서 열왕기까지)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과 남왕국에 임한 패배와 유배의 심판을 받을 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비평주의 해석자들은 노트의 핵심적 관점들 중 많은 부분, 특히 신명기적 역사의 저작 연대를 바벨론 유수 중 어느 때로 보는 것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가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의 개별 책들이 지닌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고 바르게 주장하는 비평주의 학자들도 많다. 그리고 그들은 노트가 이 책들에 나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의 저자와 연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비평주의 견해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현대 복음주의 견해, 즉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시인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관점을 살펴보자. 이 관점은 여호수아서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여호수아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인도할 것이다.

C. 복음주의 견해(EVANGELICAL OUTLOOKS)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는 익명이다. 그 결과로 복음주의자들은 책의 저자와 연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고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책의 형성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책의 완성 연대의 가능한 범위를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서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자.

1. 형성 과정(Development)

책의 형성 과정을 말할 때 우리는 다른 많은 구약 저자들처럼 여호수아서의 저자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 오히려 그는 책을 지으면서 다양한 기록 자료들을 수집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탈무드**와 비평주의 해석자들은 여호수아서가 일종의 형성 과정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대체적으로 복음주의자들도 저자가 기록 자료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우리는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수 10:13 에 따르면 저자가 **야살의 책**(두루마리)이라고 불리는 자료에서 직접 인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에 대해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저자와 그의 원래 청중은 알고 있었다. 이 강좌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야살의 책** 외에도 모세 오경의 일부와 여러 종류의 성경 외의 본문들을 여러 번 포함시켰다. 이 미확인된 자료들을 재구성하려면 우리는 많은 추측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자가 **야살의 책**과 같은 더 이른 자료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호수아서가 때때로 반복적이고 영성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전 자료들에 대한 이러한 사용은 또한 우리가 책의 최종 형태의 연대를 식별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호수아서는 15 차례에 걸쳐 이런 저런 상황이 “오늘날까지” 사실이었다고 말한다. 당연히 “오늘날까지”라는 어구가 저자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왕상 8:8 과 같은 구절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까지”라는 어구는 실제로 이전 자료들의 시대를 가리킬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여호수아서에 어떤 형성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언제 이 책이 완성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갖고 있는 형태로 완성되었는가?

2. 완성(Completion)

저자가 여호수아서를 최종 형태로 완성한 때는 많은 구약 책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식별할 수가 없다. 오직 내증과 외증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 가장 이른 연대와 가장 늦은 연대를 식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강좌를 통해 알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가능성의 범위를 염두에 두면, 저자가 원래 청중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완성 시점에 대한 범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가장 늦은 완성 연대를 고찰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가장 이른 완성 연대를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수 있었을 가장 늦은 연대를 살펴보자.

여호수아서의 최종 저작의 가장 늦은 연대를 결정할 가장 좋은 방법은 여호수아서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책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일컫는 이스라엘의 일차 역사(Israel's Primary

History) —룻기를 제외한 창세기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역사—에 의식적으로 기여했다는 좋은 증거가 있다. 이 관점이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이 서로 맞물린 고리처럼 차례로 타임라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 모세 오경은 모세 시대에 나온 것으로 이 역사적 "사슬"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다섯 개의 연결 고리를 이루고 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하여 이집트에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로 끝난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가 연대순으로 다시 요셉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로 끝나기 때문이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함으로써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한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에 대한 기록을 추가한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들과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 오경을 완성한다.

이와 비슷하게, 여호수아서는 이어지는 일차 역사의 신명기적 역사 부분—신명기의 신학적 관점에 크게 의존한 부분—의 첫 번째 연결고리이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계속된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부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윗의 통치로 끝난다. 그리고 열왕기는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바벨론 유수로 끝남으로써 일차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형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열왕기는 신명기적 역사의 **모든** 앞선 책들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완성 시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가장 늦은 연대에 관해 중요한 점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서는 열왕기가 기록되기 전에 완성되어야만 했다.

이 관찰이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의 기록 시기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열왕기에 보고된 마지막 사건은 왕하 25:27-30에 나온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인 여호야긴이 주전 561년에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열왕기가 이 연대 이전에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왕기가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에서 벗어난 매우 중요한 해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열왕기 저자가 열왕기를

쓰기 전에 바벨론 유수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일어났다면, 그의 책에 이 포로 해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일차 역사의 순서에 따라 여호수아가 완성될 수 있었던 가장 늦은 연대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이다.

이 가능성 있는 가장 늦은 연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다른 방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호수아서의 완성에 관한 가능성 있는 가장 이른 연대는 무엇인가? 여호수아서가 최종 형태에 이를 수 있었던 가장 이른 연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한 세대쯤 지난 사사 시대라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저자가 책이 거의 끝날 지점인 수 24:31 에 쓴 것을 고려해보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수 24:31)

이 구절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라. 이러한 맥락을 따르며 우리는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여호수아서 저자에 대한 어떤 것을 암시한다. 그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일어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사기에 강조되어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여호수아서가 완성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연대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임을 시사한다.

여호수아의 다른 구절들도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수 19:47 은 단 지파가 북쪽에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한 것을 언급한다. 삿 18:27-29 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사사 시대에 일어났다. 따라서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완성을 위한 가능성 있는 가장 이른 연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많은 해석자들이 여호수아서의 저작 연대로 왕정 시대를 주장해 온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실제로 최종 작성의 가능성 있는 가장 이른 연대라고 결론지었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견해에 대한 주요 증거는 수 11:21 에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다(수 11:21).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구절은 “유다의 온 산지,” 즉 남왕국과 “이스라엘의 온 산지,” 즉 북왕국을 구별하고 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이러한 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리된 주전 930 년경 이전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덧붙여 말할 것이 있다. 적어도 칠십인역—구약 성경의 고대 헬라어 역본—의 한 버전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자들은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역본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독법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한다. 따라서 수 11:21 이 왕국의 분열을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여호수아가 완성될 수 있었던 가장 이른 연대는 사사 시대의 어느 때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늦은 왕정 시대의 어느 때도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더 늦은 바벨론 유수 기간의 어느 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 모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은 여호수아서가 다루려고 했던 도전의 종류를 더 완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의 저자와 연대에 대해 공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서론의 두 번째 고려 사항인 책의 디자인과 목적을 살펴볼 것이다. 저자는 여호수아 시대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디자인했는가? 그리고 그는 왜 그런 식으로 디자인했는가?

III. 디자인과 목적(DESIGN AND PURPOSE)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같은 성경의 역사책을 공부할 때마다, 동일한 역사적 사건들이 오류 없이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역사적 사건들을 전하는 모든 성경책은 특정한

목적은 달성하고 원래의 청중을 위한 특정한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이 전하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후속 강의들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단계로 나누어 여호수아서의 디자인과 목적을 간단히 요약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조, 곧 책의 대규모 배열을 소개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책의 원래 의미, 즉 저자가 원래의 청중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자 했는지에 대해 논평할 것이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자.

A. 내용과 구조(CONTENT AND STRUCTURE)

여호수아서는 총 24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유형의 문학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기록 자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장소들의 목록들뿐만 아니라 내러티브들, 보고들, 연설들을 만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석자들은 여호수아서의 구조적 세부 사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그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대규모로 함께 작동하는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리차드 프랫[Richard L. Pratt, Jr.] 박사)³ 구약 학자들은 성경의 다양한 책들에 들어 있는 장르를 식별하고 지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서는 그 안에 3 가지 주요 문학적 유형을 갖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내러티브 혹은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을 갖고 있다. 내러티브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바 여리고 전투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긴 목록, 특히 지리적 목록을 갖고 있다. 지리적 목록은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장소를 하나 하나 차례로 나열한 것이다. 셋째로, 그것은 한 특정 사람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는 연설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이 3 가지 큰 문학 범주의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³ Dr. Richard L. Pratt, Jr.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ird Millennium Ministries.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책의 첫 번째 주요 부분, 두 번째 주요 부분, 세 번째 주요 부분과 대략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주로 내러티브이고, 두 번째 부분은 주로 지리적 목록이고, 세 번째 부분은 주로 연설이다. 그러나 이렇게 셋으로 나누면 문제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주요 장르 혹은 포괄적 장르로 지칭된 각 부분에 다른 두 가지 유형도 늘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과 이러한 다양한 장르들을 다룰 때, 그것들을 엄두에 두고 읽어가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석자들, 특히 신입 해석자들 혹은 구약의 신입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혼란은 이러한 장르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다루어져 하는 방식대로 다루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 우리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여호수아서를 접근할 때 그러한 다양한 장르에 초점을 맞추지 않거나 그것들이 어떻게 책의 여러 부분에 섞여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여호수아서는 3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분된다. 각 부분은 시간의 의미심장한 변화를 시사하는 진술로 시작한다. 첫 번째 부분(1-12 장)은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가나안 정복에 초점을 맞추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시점을 보여주는 어구인 “모세가 죽은 후에(수 1:1)”로 시작한다.

1.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1-12 장)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부분(1-12 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전한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과 여리고와 아이에서 첫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 후에 그리심 산과 에발 산 부근에서 언약 갱신 의식이 뒤따른다. 그런 다음 내러티브는 약속의 땅의 남쪽 지역에서 결성된 동맹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주요 전투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 기록은 북부 지역에서 결성된 동맹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전투로 이어진다.

2.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13-22 장)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부분(13-22 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다루며 특정 기업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되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의 국가적 통일성이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두 번째 부분도 시간적 진술, 곧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수 13:1).”라는 절로 시작한다.

여호수아서의 이 두 번째 주요 부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요단강 동편(Transjordan)과 요단강 서편(Cisjordan)의 영토의 범위를 밝힌다. 그리고 이어서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도록 허락을 받은 지파들에게 분배된 구체적인 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이 부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 서편의 넓은 영토들을 유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셨고, 어떻게 더 작은 영토들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주셨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서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과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했는지 설명한다.

3.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23-24 장)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주요 부분(23-24 장)은 책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성하도록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언약 조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 여부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설명한다. 이 세 번째 부분도 역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또 다른 진술, 즉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수 23:1).”라는 절로 시작한다. 이 시간적 알리는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다(수 23:14).”라는 여호수아 자신의 말에 의해 강화된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두 장은 여호수아가 죽을 무렵에 소집했던 두 번의 집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들 중 첫 번째 집회는 여호수아 시대와 그 이후 사사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성지인 실로에서 열렸던 것 같다. 두 번째 집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세겜에서 열렸다. 이 마지막 집회로 책이 끝난다. 이 두 집회에는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어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서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들은 다른 모든 민족의 신들을 거부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언약의 규정대로 섬기겠다고 맹세했다. 이 언약 갱신에 이어 나오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여러 가지 후속 사건들을 포함하는 후기로 책이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책의 디자인과 목적을 탐구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원래 의미를 어떻게 요약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저자가 여호수아서를 쓴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여러 면에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도 모든 성경의 저자가 공유한 목적들을 가지고 책을 썼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책을 디자인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들을 원래 청중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또한 여호수아서 저자가 자기 책을 쓸 때 자기 청중을 위해 특별히 강조했던 점들도 식별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의 원래 의미를 요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상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것이다.

**여호수아서는 후세대들이 직면한 유사한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 지파들의 기업,
언약의 충성에 관해 기록되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요약은 여호수아의 책의 세 가지 주요 부분인 승리의 정복, 지파들의 기업, 그리고 언약의 충성을 언급한다. 그런데 왜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했는가? 우리의 요약이 시사하듯이, 첫째로, 그는 청중에게 여호수아 시대의 사건들을 상기시키려고 했다. 둘째로, 그는 후세대와 그들이 직면한 유사한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글을 썼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염두에 두고, 저자가 여호수아의 시대에 대하여 쓴 이유를 먼저 살펴보자.

여호수아서에 익숙한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장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한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약적 충성을 맹세한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저자의 중심 목적 중 하나는 "그 세계," 즉 여호수아 시대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원래의 청중에게 알리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수 24:31 에서 자기와 자기 청중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과 구별하면서 이것이 원래 청중의 문제임을 암시했다.

여호수아서의 원래 청중은, 그들이 사사 시대에 살았든, 왕정 시대에 살았든, 바벨론 유수 기간에 살았든,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저자가 그의 원래 청중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었던 일에 대한 참된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의 요약이 시사하듯이, 여호수아서는 또한 후세대들의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기록되었다. 말하자면, 저자는 두 세계, 즉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세계인 "그 세계"와 원래 청중의 세계인 "그들의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기록만을 쓰지 않았다. 저자는 또한 "그 세계"와 "그들의 세계" 사이에 의미 있는 접착점이나 연결점을 제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정복, 지파들의 기업 분배, 언약의 충성 요구에 대하여 썼다. 다른 성경 저자들처럼, 그는 청중의 현재 특권과 책임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역사적 배경을 자주 지적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따르거나 피할 모델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그는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들을 원래 청중의 경험의 전조로 기록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우리 저자에 대한 무언가를 드러낸다. 한편으로, 그는 청중이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기를

원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청중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다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원래 청중은 다른 시대에 살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의 역사적 기록을 그들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T. J. 베츠[Betts] 박사)⁴ 나는 여호수아서의 원래 청중이 그 메시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 ...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되었다.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핵심적으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신실하시고 신실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 백성이 사사 시대로 접어들 때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으로 묘사되는 것을 보지만 그들에게 요구되어 온 것이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현재 입장에 비추어, 곧 지금 세대가 여호수아의 발자취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있는 입장에 비추어, 그들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신실했던 사람들의 삶에서 보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요구이다.

때때로 현대의 해석자들은 원래의 청중이 어떻게 이 역사적 기록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의도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우리 저자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와 그의 청중이 그들의 시대에 이용 가능한 성경, 즉 우리가 모세 오경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배웠을 몇 가지 관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면, "그들의 세계"를 위한 "그 세계"에

⁴ **Dr. T. J. Betts** is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대한 저자의 기록이 암시하는 것들을 식별하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보인 것만큼 어렵지 않다.

1.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원래의 청중에게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정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무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고려해보라. 여호수아 1-12 장은 여호수아의 위대한 승리들에 대한 기록을 제공했다. 그러나 모세 오경에서 유래한 전쟁에 관한 세 가지 기본적인 관점은 그들이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a) 원시 갈등(Primeval conflict)

첫째로, 우리 저자와 그의 청중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원시 갈등에 뿌리를 둔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 3:15 은 타락한 이래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해 왔음을 암시한다. 이 보이지 않는 갈등은 이 땅에서 뱀의 씨, 즉 후손들(사탄의 권세를 섬기는 자들)과 여자의 씨, 즉 후손들(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의 갈등을 단순한 물리적 전쟁으로 축소하지 않는 이유다. 오히려 수 5:14 에서 저자는 천사 같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언급했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과 그의 천사 군대가 관련된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수 23:16 과 같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가나안 족속의 사탄적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가나안 족속과 나란히 서 있다는 것도 인식했다. 여호수아의 원래 청중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b) 이스라엘의 특별한 갈등(Israel's special conflict)

둘째로, 모세 오경은 또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전쟁임을 분명히 했다. 원래 청중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그들과 다음 세대들은 모든 세부 사항까지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었다. 모세 오경은 여호수아의 시대가 특별했음을 분명히 했다.

창 15:13-16 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가나안 족속의 다른 이름)의 죄악”이 “아직 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한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무렵에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너무 역겨웠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전한 멸망을 요구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요구하셨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것이 우리 저자가 모세 오경의 어휘에서 뽑은 히브리어 동사 **מָחַח**[하람]과 명사 **מַחֲחָה**[헤렘]을 사용하여 가나안의 진멸을 묘사한 이유이다. 수 6:17, 19, 21 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문맥에서 이 용어들은 단순히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주님께 온전히 바치다,” 또는 “주님께 바치기 위해 진멸시키다”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그것은 가나안의 악명 높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의 행위로서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정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에 진멸과 여호와께 바침에 대한 이 명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했다는 것을 안다. 우선 하나는, 신 20:10-20 에서 모세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을 명령했지만 가나안 땅 밖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평화 조약을 제안하라고 명령했다. 여호수아 자신도 여호수아 9 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 밖에서 왔다고 믿고 그들과 조약을 맺을 때 이 구별을 인정하였다.

이 외에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특별한 성격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지속되는 갈등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전과 이후가 어떤 다른 양상을 띠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창 11:1-9 을 보면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하늘 군대는 바벨탑 사건에서 반역한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군대 없이 싸우며 사람들을 그냥 흩어버렸다. 창 14:1-24 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원수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다. 출 12:12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과 싸우셨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동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집트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셨다. 출애굽기 14 장을 보면,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전투 대형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랐다. 그러나 애굽 군대를 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비슷한 종류의 일들이 나타난다. 사무엘서가 설명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입어 이스라엘의 많은 적들과 싸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적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다. 열왕기는 다윗 계보의 후손들의 여러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알려준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전쟁과 연관되어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악과의 갈등은 모세 오경과 구약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모든 전쟁에 대한 규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물론 원래의 청중은 여호수아서로부터 그들 시대의 전쟁에 대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정복 자체는 특별한 심판의 시기였다. 다른 많은 전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라합과 같은 보기 드문 예들을 제외하고 가나안 족속이 진멸을 받아 마땅하다고 결정하셨다.

(케빈 래비[Kevin Labby] 목사)⁵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져서 특히 가증해졌다. 창세기 15 장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암시가 있다.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그들의 타락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해하는 개념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하였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⁵ **Rev. Kevin Labby** is Senior Pastor of Willow Creek Church in Winter Springs, FL.

그들은 매우 작은 나라이다.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이전의 세대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큰 죄를 지었다. 그들은 심지어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도 죄를 지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다른 민족(가나안 족속)을 말살하고 제거하려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게 되었을 때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이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기 사는 가나안 족속의 종교적 관습과 우상숭배와 죄악에 의해 타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주변 나라들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조차도 다음 책인 사사기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죄악상의 단면을 본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하고 죄악과 쇠퇴의 나선적 하강에 점점 더 빠져들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점점 없어지며 주변 나라들과 점점 더 같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피하고자 하셨던 것이었다.

c) 이스라엘 왕의 미래 승리(Future victory of Israel's king)

셋째로, 우리 저자는 또한 모세 오경을 통해 여호수아의 정복이 이스라엘의 왕, 즉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것으로 예상되는 왕의 미래의 승리를 향한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찍이 족장 야곱은 창세기 49:10 에서 유다의 왕가가 "만민의 복종"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사 시대에 유다의 왕가에 대한 이러한 소망은 삿 1:1-2 에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주도적 역할에서 인정되었다. 시편 72 편과 같은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대의 성취는 왕정 시대에 구체적으로 다윗의 집과 동일시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여러 구절들에서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 모든 나라를 이기는 것으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따라서 원래의 청중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들이 그들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단지 여호수아가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장래에 세계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역사를 진행하실 때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서 일어난 것을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야만 했다.

2.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우리의 저자는 그의 청중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분배를 다루는 책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신학적 관점을 갖기를 기대했다.

a) 인간의 원시 지배(Primeval human dominion)

첫째로, 저자는 모세의 책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부르신 원시 소명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했다. 하나님은 원시 시대부터 그분의 신실한 형상들(인간들)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함에 따라 땅이 그분의 나라로 바뀌도록 정하셨다. 이 부르심은 창 1:26-30 을 통해 처음 전해졌고 나중에 창 9:1-3 을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에 대한 기록은 원래의 청중에게 분명히 적실성이 있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원래 청중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b) 이스라엘의 특별한 기업(Israel's special inheritance)

둘째로, 저자는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기업을 세우셨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한 것은 이 기업의 초기 성취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창 15:18-21 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위한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어지는 기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소유한 것을 언급할 때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단어들, 즉

히브리어 동사 נָחַל [나할]("상속받다, 물려받다")과 명사 נַחֲלָה [나할라]("상속, 유산, 기업")를 자주 사용한다.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속적인 소유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원래의 청중은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했던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불화와 다른 민족들의 괴롭힘은 여호수아의 성공적 정복이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했다.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땅을 확장했지만, 좌절과 손실도 경험했다. 물론,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 극히 일부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다른 나라들의 폭정 아래서 머물러야 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한 일은 원래의 청중이 그들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노력하는 데 커다란 통찰력을 제공했다.

c) 이스라엘 왕의 미래 기업(Future inheritance of Israel's king)

셋째로, 저자는 또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기업이 이스라엘 왕이 제공할 미래의 기업을 향한 한 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크시고 의로우신 왕은 온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 받은 인간의 원래 소명을 이루시며 모든 땅과 나라를 소유하실 것이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창 49:10 은 언젠가 유다 계보의 왕이 "만민의 복종"을 받을 때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선언한다. 게다가 창 17:4 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 2:8 에서 다윗의 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가 열국을 네 유산으로 주어 온 세상이 네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윗의 위대한 자손의 땅이 온 땅으로(땅의 한 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여러 번 선언했다. 바울은 롬 4:13 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약속"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구약의 관점을 잘 요약했다.

(데니스 E. 존슨[Dennis E. Johnson] 박사)⁶ 로마서 4 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한 기업에 대한 약속이 온 세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본다.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지중해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단지 한 조각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아브라함 언약을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의 일부이다. 그래서 그는 그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생물학적 후손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발자취,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들이라고 강조한다(갈 3:28-29).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4 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전 세계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하여 말할 때, 사실 그는 동일한 이해를 넓히고 있었던 것이다.

3.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책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원래의 청중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충성을 요구하는 것을 다루는 세 번째 부분을 적용할 때도 모세 오경의 특정한 신학적 관점을 유지하기를 기대했다.

a) 인간의 원시 충성(Primeval human loyalty)

첫째로, 저자는 모세 오경을 통해 언약적 충성이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란 원시적 요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언약으로 하나님과 결속시키며 이 결속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섬김을 요구한다. 아담을 통해 온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3 장과 호 6:7 에 나타난 대로 순종을 요구했다.

⁶ Dr. Dennis E. Johnson is Academic Dean and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t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그리고 창세기 6 장과 9 장에 나오는 노아를 통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인간이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음을 밝혀 주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의 청중은 여호수아가 그의 시대에 언약의 충성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의무가 있었다.

b) 이스라엘의 특별한 언약의 충성(Israel's special covenant loyalty)

둘째로, 원래 청중은 또한 이스라엘의 특별한 언약적 충성을 인식해야 했다. 저자는 가나안 정복의 시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권면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이 그렇게 하기로 맹세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원래 청중은 창세기 17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완전할 것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할례를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9-24 장에서 맺으시고 신명기에서 갱신하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여호수아는 책의 세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요구 사항들, 특히 거짓 신들을 거부하라는 요구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닥칠 시련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불충할 경우 고난을 겪고 패배를 당하고 약속된 땅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 앞에 제시했다.

여호수아서의 원래 청중의 시대에 이러한 시련들이 이미 전개되기 시작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고난의 악순환에 접어들었다. 왕정 시대에 백성과 왕들의 거둬드는 우상 숭배로 인해 더 많은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했다.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약속의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원래의 청중은 그들 당대에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경고를 생각해 보아야 했다.

c) 이스라엘 왕과의 미래 언약(Future covenant with Israel's king)

셋째로, 여호수아의 시대에 일어난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맺을 미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창 49:10 이 하나님께서 유다 계보의 왕이 다스리도록 정하신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창 17:6 은 또한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합법적인 왕이 없었지만, 삿 21:25 과 삼상 2:10(한나의 노래의 마지막 절)과 같은 구절들은 심지어 사사 시대에도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왕가를 통한 구원을 바라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나 바벨론 유수 기간에 기록되었다면, 원래 청중은 언약적 충성에 대한 여호수아의 요구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왕조 언약과 연관시켜야 했다. 사무엘하 7 장과 시편 89 편과 132 편과 같은 단락을 통해 우리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충성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알 수 있다. 다윗 계보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했다.

게다가, 사 53:11 의 예언에 따르면, “의로운 자인 나의[=여호와의] 종,” 즉 이스라엘의 완전히 의로운 왕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미래에 영원한 용서가 올 것이다. 이 위대한 왕은 다름 아닌 예수님, 곧 예레미야 31 장에 예언된 새 언약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이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원래 청중은 언약적 충성에 대한 여호수아의 요구를 자신들의 시대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이러한 언약들의 발전 과정에서 그들이 서 있던 위치에 비추어 그렇게 해야 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저자가 그의 청중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가 기록한 승리의 정복, 지파들의 기업, 언약의 충성에 대한 요구를 적용하기를 원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서론을 다루며 책의 저자와 연대, 그리고 책의 디자인과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기독교인의 적용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호수아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IV.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이다. 이 단순한 사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시작된 일을 성취하시거나 완성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여러 면에서 여호수아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러한 성취에서 나온다. 여호수아서와 예수님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더 많이 파악할수록 여호수아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후세대를 지도하기 위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의 정복, 지파들의 기업, 언약의 충성에 대해 썼다. 그러나 저자는 또한 미래에 언젠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와서 여호수아서에서 지적된 모든 목표를 성취할 것이라고 이해했다.

(헨리크 투르카니크[Henryk Turkanik] 목사)⁷ 여호수아가 승리의 전투들을 이끌고 있을 때, 그는 백성을 이끌며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해 변호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했고 약속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이것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4 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약속된 기업으로 인도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변호하고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신약의 백성,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 이 모든 것은 신약 시대를 위해 의도된 그림이다.

대충 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루었던 좋은 일들—즉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의 최초 상속,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언약적 충성—과 비교해보면 예수님께서 각각의

⁷ Rev. Henryk Turkanik ministers with the Church of Free Christians, Poland.

목표를 어떻게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지 알 수 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취를 이스라엘의 실패와 대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명령받은 대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한 것, 그들의 지파 기업을 두고 논쟁하고 다툰 것,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지 않은 것을—**뒤집으시는** 것을 본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온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시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세상 어디에서나 언약의 충성을 세우신다.

그러나 오늘날 여호수아서를 기독교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표들에 대한 메시아적 성취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구약 성경의 예언에 근거하여, 1 세기 팔레스타인의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성공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상속하며, 모든 곳에 언약의 충성을 퍼뜨릴 것이라고 올바르게 믿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또한 그가 대이변을 통해 신속하게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서로 연결된 세 단계를 통해 점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각 단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호수아서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얻을 것이다.

A. 개시(INAUGURATION)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개시 단계에서 성취하신 것을 검토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서에 확립된 기대들을 어떻게 충족시키셨는지 고찰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조사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무엇을 성취하실지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 단계를 살펴보자.

1.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개시가 그의 영광스럽고 전 세계적이고 성공적인 정복의 첫 단계였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정복과 예수님의 초림을

비교하면, 우리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물리적인 칼을 들기보다는 이중 전략을 취하셨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악귀들에게 궁극적인 패배를 안겨주기 시작하셨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제공함으로써 복음,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다.

요 12:31-32 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이 이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골 2:15 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 그들을 이기신" 것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엡 4:8 에서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탄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많은 포로를 이끄시고" "[그들을] 선물로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했다.

2.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신약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기업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강조한다. 한편으로, 히 1:2 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 28:18 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기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한편으로, 신약 성경은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의 전 세계적인 기업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고 강조한다. 사 44:3-4 과 같은 예언들이 시사하듯이, 성령의 부으심은 어느 날 온 피조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엡 1:14 에서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고후 1:22 과 5:5 에서 표현한 것처럼, 성령은 장차 올 일,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장래 기업에 대한 "보증"이다.

3.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게다가,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의 개시를 통해 새 언약 시대를 여실 때 언약의 충성을 강조했다고 선언한다. 예레미야 31 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암시하시며, 예수님은 눅 22:20 에서 제자들에게 "이 잔은 ...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신자들을 위한 마지막 속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초림을 통해 곧바로 지상에 새 언약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참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게다가, 고후 11:26 과 갈 2:4 에서 바울이 불렀던 "거짓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언약의 충성에 대한 요구는 계속 진행된다.

B. 지속(CONTINUATION)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와 관련하여 기독교적으로 적용한 것처럼,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 왕국의 지속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면에서 똑같이 기독교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왕국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하여 그분의 승리의 정복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시기로 묘사한다. 바울이 고전 15:25 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늘에서] 통치하셔야 한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물리적인 무기를 들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세우신 이중 전략을 계속 이어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사탄과 악령들의 패배를 촉진한다. 엡 6:12 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용서와 영생의 자비를 제공하는 좋은 소식(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오늘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고후

5:20 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온다.

2.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우리는 또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기업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더 발전되는 것을 본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유의 후사라는 사실은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전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나누어 주신다. 갈 3:29 과 같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은 ...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롬 8:16-17 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다."

3.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여러 면에서 우리는 또한 여호수아가 언약적 충성을 강조한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다.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면서 새 언약의 보혈의 온전한 속죄는 여전히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운명이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가 언약의 충성을 요구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참 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키워야 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히 12:14 과 같은 구절들의 경고를 받아야 한다. 히 10:26-27 을 보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대적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는 말씀이 나온다.

(셰리프 젠디[Sherif Gendy] 목사)⁸ 언약의 충성과 갱신이라는 주제는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끈 거의 모든 전쟁이 끝난 후, 언약을 갱신하며 언약의 맥락 안에서 여호와께 충성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을 본다.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주님과 언약 관계, 곧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언약의 충성이란 주제가 주님이 행하신 일, 곧 주님의 은택과 주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언약 안에서 여호와께 충성하고 신실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은 중요했다.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의 은혜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신실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의 순종, 즉 주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순종에서 드러나야 한다. 우리가 순종과 신실과 충성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 언약에서 주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언약의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이러한 복과 은택에 반응해야 한다.

C. 완성(CONSUMMATION)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이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와 지속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의 완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장래와 최종 성취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⁸ Rev. Sherif Gendy is Director of Arabic Production a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1. 승리의 정복(Victorious Conquest)

의심할 여지없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왕국의 완성이 그의 전 세계적인 승리의 정복에 대한 웅장한 피날레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는 사탄과 악령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은 끝나버릴 것이다. 그 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인간 원수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비하면 작아 보일 것이다. 계 19:14-15 에서 읽을 수 있듯이, “하늘의 군대들이 ... 그를 따르리니 ... 그의 입에서 만국을 칠 예리한 검이 나올 것이다.”

2.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물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왕국을 완성하실 때, 만유의 후사로서 그의 권리인 전 세계적인 기업은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계 11:15 에서 읽을 수 있듯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전 세계적인 왕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분배될 것이다. 마 25:34 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금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3. 언약의 충성(Covenant Loyalty)

그리스도 왕국이 완성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적 충성을 요구하는 경고가 끝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그에게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 신자들은 모두 새 언약의 복들이 충만하게 주어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계 22:3 이 말해 주듯이, 그 때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사실상,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의 개시, 지속, 완성의 단계에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복과 기업 소유와 언약적 충성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초림에서 세우신 경이로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풍부하게 한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복이 완료되고 새로운 세계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언약 백성으로 입증될 역사의 웅장한 피날레를 우리에게 가리킨다.

V. 결론(CONCLUSION)

“여호수아서 서론”이란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우리는 책의 저자와 연대를 다루며 이 문제들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비평주의 관점, 복음주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디자인과 목적을 조사하며 책의 내용과 구조 그리고 책의 원래 의미를 고찰했다. 셋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몇 가지 기독교인의 적용을 탐구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개시와 지속과 완성의 단계에서 어떻게 여호수아서에서 확립된 기대들을 성취하시는지 살펴보았다.

여호수아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당대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 그들을 위해 이루신 일을 상기시켜 주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면에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 강좌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시대에 행하고 계셨던 일에 대한 열심을 새롭게 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갱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여호수아서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 크신 여호수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커질 것이다.